

THE COVE

이 단층 목조 건물은 1916년 가마고리 클래식 호텔의 전신인 도키와칸 여관의 별관으로 지어졌습니다. 해변 여관의 투숙객은 도키와칸 본관이 있던 곳의 바로 북쪽의 해안이 내려다보이는 언덕에 위치한 이 건물에 묵을 수 있었습니다.

객실은 가정집과 여관의 전통적인 일본식 방에서 볼 수 있는 불교의 선에서 영감을 받은 서원 스타일에 찻집 건축 요소를 통합한 다실풍 서원 스타일로 지어졌습니다. 다실풍 서원 스타일은 노출되고 도색하지 않은 목재와 은은한 색상의 흙벽, 장식용 물건을 전시하는 도코노마 벽감, 빛이 들어오는 슬라이딩 후스마 종이 패널, 다다미 바닥이 특징입니다.

이 건물은 유형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료테이 다케시마 레스토랑이 입주해 있었으며, 호텔 투숙객들은 2025년부터 숙박할 수 있습니다.